

칼럼

장기채 주필



천년의 맛, 김치 예찬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10월령을 보면 겨울을 앞두고 여러 준비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김장을 꼽았다.

“시월은 초겨울이니 입동 소설 절기라다. 나뭇잎 떨어지고 고니 소리 높이 난다. 뜰겨라 아이들아 농사일 끝났구나. 남의 일 생각하여 집안 일 먼저 하세, 무 배추 캐어 들어 김장을 하오리라. 앞 냇물에 깨끗이 씻어 소금 간 맞게 하소.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조기 김치 장아찌라, 독 옆에 중두리요, 바탕이에 항아리라. 양지에 움막 짓고 짚에 싸 깊이 묻고 장다리 무 아람 한 말 수월찮게 간수 호소”

그렇게 우리네 발농사는 마치 아이안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끌어주고 어르듯이 정성을 다한다.

그렇게 ‘가꾼다’. 개화기 한국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기독교 선교사 개일이 한국 사람들 발농사 짓는 것을 보고 ‘농사가 아니라 원예(園藝)’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유렵에서 발농사는 발 갈아서 씨앗 뿌리고 다 자라면 거둬들이기만 하면 된다.

곧 유렵의 농사에는 가꾼다는 개념이 없다. 이에 비해 우리 발농사는 마치 아이 안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끌어주고 어르듯이 손을 많이 써야한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제 몸 가꾸듯 푸성귀를 가꾸었다. 손이 많이 갈수록 푸성귀가 잘 자랄 뿐 아니라 손의 훈김이 푸성귀에 자주 듬뿍 닿을수록 맛이 더한다고 여겼다.

또 그렇게 가르쳐 내방문화로 계승시켜 왔다. 모든 정성 다해 가꾸고 나면 수확한다. 수확과 함께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가정마다 주부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이 시대 어르신들의 어릴 적만 해도 월동 준비 첫 번째는 김장이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김장하는 날이 잔칫날이나 다름없었다. 그 때만해도 집집마다 김장철이면 김장품앗이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누던 시절이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수확한 모든 재료를 ‘다

듣는다’. 다듬는 순간부터 음식에 손맛이 들기 시작한다. 모든 푸성귀는 세 번 씻고도 맑은 물에 여러 번 행구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채소를 조리할 때 가끔적이면 쇠칼로 썰는 것을 피했다.

우리 음식의 조리에서 ‘간다’는 동작은 마술처럼 정교하고 신기롭다.

‘절이다’는 것은 조금씩 서서히 간을 배게 하는 과정이다.

‘담근다’. 담근는 과정은 재료나 양념에서 나오는 맛이 아닌 손가락에서 나오는 맛을 ‘손맛’이라 해 옛날 부도(婦道)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김치 맛의 요묘함은 양념들의 배합의 결과로 나타났다.

‘삭힌다’. 한국 특유의 ‘삭은 맛’은 음식의 발효에서 좌우됐다. 해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한 나라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김치를 담는 사회가 또 어디 있었는가.

김치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먹거리로 삶과 지혜가 응

축된 과학적 음식이다. 진수성찬이 있어도 김치 없는 밥상은 ‘짓가락 갈 대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한국의 정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 속에는 음양오행 사상이 짙게 깔려있다.

상호조화를 이룬다는 철학이기도 하다. 김치는 또한 오미(五味)를 갖추고 있다.

고추의 매운 맛, 소금의 짠 맛, 양념과 과일의 단 맛, 젓산 발효의 독특한 신 맛, 여러 가지 채소의 씹는 맛, 굵은 소름에 절여 막 담긴 막 김치의 쓴 맛이 어우러져 오묘한 맛을 지녔다.

동배추김치, 석박동치미, 통배추동치미, 통무동치미, 석박동김치, 동태식혜, 동태식박지, 오징어식박지, 낙지식박지, 대구식박지, 통대구김치, 고들빼기김치, 통무소박이, 보쌈김치 등 김치라는 하나의 식품을 200여 종의 다양한 김치로 만든 것은 우리네 어머니에서 어머니에게로 오랜 세월 전승되어온 생활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의 소박한 음식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먹는 사람을 위한 지극한 정성을 담았기 때문이다.

김치가 세계인들의 식탁에서 사랑받고 인정을 받는 생명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김장은 김장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社 說

한전공대 설립 차질 없어야

한전공대 설립작업이 학교법인 설립 신청에 이어 최대 고비로 예상됐던 국회 국정감사를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는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예상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는 평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 누적, 대학 혁명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이 적절치 않다는 측면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며 야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했다.

한전은 지난 달 30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하게 되어 있어 올해 말 학교법인 설

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한전공대는 ‘30년 내 세계 최고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한다.

대학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하게 되며 2022년 3월 개교한 뒤 단계별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학생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이고 정원 외로 30%의 외국인 학생 3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교수 100명, 직원 100명이며 교수와 학생의 비중을 국내 최고수준인 1대10으로 유지하게 된다.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만 개설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로 학생을 선발한다.

한전공대의 설립은 지역민의 염원이자 국정운영 사업이기도 하다.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일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랜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들이철,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가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각종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어 주말이면 가족이나 연인 등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연장 등에서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작은 무질서가 큰 혼란으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

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많은 군중이 움직일 경우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등 가설 건축물의 붕괴와 주취자 등에 의한 빈병 등 위해물질 투척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운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관객들의 무차별적인 접

근에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출입구를 개방하고, 관중과 무대와의 거리, 장애물 설치여부 등의 사전 검토로 무질서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 두도록 하자.

아울러,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 부모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더라도 순식간에 부모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미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이름표나 팔찌를 꼭 착용시키고 관심을 갖고

아이로부터 시야를 확보토록 하자.

주5일 근무제와 여가인구의 증가로 가족동반의 나들이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시설물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운영을 철저히 하고 관람객들은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공연장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